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⑤	5	①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⑤	18	①	19	⑤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③	25	②
26	①	27	④	28	②	29	③	30	①
31	①	32	③	33	⑤	34	②		

해설

** 독서 이론 **

□ 출전 : 천경록 외, <독서 교육론>

1. [출제의도] 추론적 읽기의 특성 파악

글의 응집성이나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은 추론적 읽기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추론적 읽기 과정에서 글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에서 필자가 글의 내용을 생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독자의 읽기 능력에 비해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독자의 추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독자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독서의 특성 추론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추론하기 위해 자신이 읽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자신의 확장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때에는 꼼꼼한 읽기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중세가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문장을 통해 글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 것은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③ 중세 유럽인의 평균 수명을 현대인의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본 것은 글에 제시된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비교해 가며 추론적 읽기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삼아,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추론적 읽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추론적 읽기의 방법 이해

<보기>는 잘못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파악할 경우, 정확한 추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추론 과정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비교한다는 ㉠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① ㉠과 <보기>의 관점 모두 글이 쓰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적 읽기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과 <보기>의 관점 모두 독자의 배경지

식 수준에 따라 추론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과 <보기>의 관점 모두 독자가 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때 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과 <보기>의 관점 모두 독자가 글에 드러난 단서를 찾아 문장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주제 통합 **

□ 출전 : (가) 강신주, <철학 대 철학>
(나) 루이 알튀세르, <철학과 맑스주의>

4. [출제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가)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삶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왕충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클리나멘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루크테리우스의 사상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알튀세르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① (가)는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 즉 하늘의 뜻에 대한 왕충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사물의 의미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견해들을 절충한 사상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도를 바라보는 노자, 장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사상가들의 논쟁을 소개하거나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는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제시되었으나, 그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가)의 3문단에서 ‘당시 사람들은 ~ 주장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충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보았다는 점과 왕충은 당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충이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세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그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 소통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일부 철학자들은 ~ 곧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세계 형성의 우연성을 주장한 ~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와 ㉣는 도형의 모양이 부바와 키키라는 명칭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상의 이름과 대상의 속성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① ㉡는 대상의 명칭이 대상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상과 대상의 이름은 자의적인 관계라고 바라본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는 95%의 실험 참가자들이 도형의 모양과 명칭을 똑같이 짝지은 ㉡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상의 속성과 대상의 이름이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장자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의 결과는 대상의 속성이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와 ㉡는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줄 뿐,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대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과는 관련이 없다.

7. [출제의도]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플라톤은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부여한 필연적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은 사물에 필연적 의미를 부여하는 제작자 없이 클리나멘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① 루크테리우스는 원자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원자들이 서로 평행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자가 낙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② 원자들의 존재 의미보다 원자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물보다 사물의 의미가 미리 존재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루크테리우스의 생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⑤ 최초의 마주침이 다른 마주침으로 이어지려면 수많은 원자들이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루크테리우스의 생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플라톤의 말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다른 견해와의 비교

‘㉠’에서 사건은 우연히 마주쳤는지, 혹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는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고 했고, 루크테리우스도 세계가 우연하게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시각은, 세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루크테리우스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은 어떤 경우에도 사물은 원인이 없이는 생성될 수 없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생성 원리라고 바라보는 주장이고, 알튀세르는 인류 역사의 흐름은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른 것이 아닌 단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제시된 사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인식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시각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원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다고 바라보는 주장이고, 노자는 도가 개체들보다 선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원인에 관한 시각은, 노자가 제시한 도가 개체들보다 선재한다는 생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개미가 밟히느냐 밟히지 않느냐는 우연히 발생한다는 주장이고, 왕충도 자연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견해는, 왕충이 주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인과적인 시각에서 왕이 바르지 않은 정치를 행하면 사변이 발생한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알튀세르는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에 제시된 사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입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의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뜻으로,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

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뜻의 '구성하다'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① ㉠의 '지나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키다.'라는 뜻의 '견지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여겨지다'는 '마음 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여기다'의 피동형으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의 '간주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달리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영향이 주어져 지배되다.'라는 뜻의 '좌우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사라지다'는 '현상이나 물체의 자취 따위가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라는 뜻의 '소멸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사회 **

□ 출전 : 김영규 외, <법학개론>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7문단에서 '정의', '이성', '형평' 등의 법원리적 규범으로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문단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유권 해석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법조문에 사용되는 문자는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선의(善意)'와 '악의(惡意)'는 일반적으로 각각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라는 뜻이지만, 법률 용어로 쓰일 때는 다른 뜻을 지닌다. 따라서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① 일반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사람'을 법률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법률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문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② 입법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누리집'을 활용하여 입법 당시에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④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이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⑤ 실험실 공장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A국과 B국 두 나라의 형법에는 전기 절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B국이 형법이 제정될 당시 전기 절도 같은 행위를 예측하여 법으로 규정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국의 법원이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은, 전기는 절도죄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B국의 법원은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에 전기를 포함하면 전기 절도 사건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전기 절도와 재물 절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절도죄에 대한 법을 전기 절도 사건에 유추 적용한 것이다. ③ B국의 법원은 전기 절도 사건에 대해 법의 명시적 흠결을 유추 적용으로 보충

했다. 유추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해야 하므로, B국의 법원은 절도죄에 대한 법이 있는지 확인했을 것이다. ⑤ A국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기 절도와 관련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였으므로, B국도 전기 절도와 관련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는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 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② ㉠은 '거느리거나 모시거나 두다.', ㉡는 '관계를 맺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 ㉡는 '직업, 자격 따위를 소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은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 ㉡는 '모임을 치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은 '자기 것으로 하다.', ㉡는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 기술 **

□ 출전 : 이종호 외, <레이더기상학>

14.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6문단에서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가 혼재하면 교차상관계수가 0.97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을 뿐, 강수 입자의 구체적인 종류는 교차상관계수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하여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을 통해 이중 편파 레이더가 대기 중으로 전파를 송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송신된 전파의 강도가 관측 범위 내의 강수 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서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아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 빗방울과 달리 입자의 크기가 커도 수평으로 퍼지지 않고 회전 운동을 하면서 낙하한다고 하였으므로, 순수한 얼음인 강수 입자가 낙하하면서 수평으로 퍼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2~6문단에서 언급한 이중 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는 반사도, 차등반사도, 차등위상차, 비차등위상차, 교차상관계수이다. 이 중에서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만 의미하므로 수직 편파를 이용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2문단에서 우박과 집중 호우의 반사도 값이 비슷하게 나타나 반사도만으로는 어떤 강수 입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슬비의 반사도는 1dBZ 이하, 집중 호우의 반사도는 20dBZ 이상, 우박의 반사도는 집중 호우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므로 반사도로 이슬비와 우박, 이슬비와 집중 호우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집중 호우의 차등반사도는 2dB 이상으로, 우박이나 눈이 녹지 않은 경우와 이슬비의 차등반사도는 0dB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차등반사도로 집중 호우와 이슬비, 집중 호우와 녹지 않은 눈을 구별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은 강수 입자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므로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0dBZ로 산출된다. 하지만 ㉡는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될 수 있으므로 두 산출 변수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이슬비와 순수한 우박

은 ㉠의 값은 다르지만 ㉡의 값은 모두 0dB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은 ㉡와 마찬가지로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수직으로 더 길면 음의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수 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할 때 ㉠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도 양의 값을 갖는다. ④ 5문단에 따라 3~6km 구간에서 ㉠의 값을 구하면 ㉡의 변화량 12°를 전파의 왕복 거리 6km로 나눈 2°/km가 된다. ⑤ 4문단에서 ㉠은 전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강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0이 아닌 값이 산출될 수 있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은 강수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고 하였다.

17.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3문단에서 차등반사도는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반사도 값은 A 지역과 B 지역이 동일하므로, 수직 반사도 값은 차등반사도 값이 더 작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클 것이다.

①, ② 비가 내리고 있는 A 지역은 반사도가 20dBZ보다 크고, 차등반사도는 2dB보다 크므로 강수 입자의 모양이 수평으로 긴 집중 호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A 지역의 교차상관계수는 0.97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A 지역의 강수 입자의 종류는 빗방울로 같되 강수 입자의 크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③, ④ 기상 현상을 알지 못하는 B 지역은 반사도가 집중 호우와 마찬가지로 20dBZ보다 크고, 차등반사도는 0dB이므로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우박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B 지역의 교차상관계수는 0.97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B 지역에는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 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조용전>

1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황제가 죽자 왕 부인 모자는 망극하다고 했으므로 왕 부인은 아들 조용과 함께 황제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을 뿐, 태자를 산으로 피신시킨 것은 아니다. 황제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산중으로 피란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태자와 관련하여 왕 부인이 행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사월 사 일에 황제의 장례를 치를 때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황제를 서릉에 안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황제는 조용에 대해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며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언급하며 조용을 태자의 서동으로 삼아 조정에 등용하려 한다. ④ 조용은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을 붙잡은 뒤,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린 것과 자신을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 시절을 요란케 한 것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 ⑤ 이두병은 태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 태자의 즉위가 매우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하며 태자의 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의 황제의 죽음 이후, 비어 있는 제위를 이을 자에 대한 논의가 ㉡에 신하들이 이두병을 황제로 추대하며 마무리된다.

① 황제가 우연히 병을 얻어 병세가 열흘 동안 깊어지지만 이러한 황제의 신상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인지는 ㉠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에 신하들은 이두병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 신하들끼리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 이두병의 반대로 조용을 서동으로 등용하지 못하고, 조용 아닌 다른 이의 등용도 윤택하지 않아 서동을 뽑으려던 황제의 뜻은 보류되었다. ㉡에는 서동을 뽑는 일과 관련하여 신하들이 의논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 ④㉑ 동안 백성들은 황제의 건강을 걱정하며 회복을 기원했지만 결국 황제는 ㉑에 죽게 되어 그들의 소망은 좌절된다.

20. [출제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

[A]는 태자의 나이가 어려 제위를 전하기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이두병과 협정을 하라는 황제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상대에게 전하고 있다. [B]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해명하며 상대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① [A]에는 물음의 방식이 드러나지만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와 [B] 모두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와 [B]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 따르면 ‘복수’란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을 붙잡고 조종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종의 원한을 대신 해결했다고도 볼 수 없다.

① 승상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조종을 천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하들을 위협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조종의 조정 진출을 막아 시련을 가하는 악인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이두병은 황제의 죽음 이후 어린 태자를 대신해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역모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대원수가 되어 팔십만 대병을 이끌고 황성에 찾아 온 조종을 보며 모두 길에 나와 고마워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조종이 이두병을 벌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뜻을 드러내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이두병을 심문하면서 태자에게 행한 일을 꾸짖으며 그를 벌하려는 조종의 행위는 왕권 찬탈을 통해 부당하게 천자 행세를 한 그의 행위를 심판하여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에 해당한다.

**** 현대 소설 ****

□ 출전 : 이문구, <관촌수필>

2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용모가 꿩을 들고 가는 성문에게 ‘위디 가지구가’냐고 묻는 말에 조순만은 아버지가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고 했다는 성문의 말을 용모에게 전하고 있다.

② 용모는 ‘나이타에 지름이나’ 넣으려고 장에 가는 길에 성문을 만나 꿩을 팔러 가는 이유를 들은 후 성문을 돕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③ 용모가 성문을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수길은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봐’, ‘누운 지두 달포’ 가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성이 병에 걸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고향성이 아들에게 ‘담뱃값 허게’ 꿩을 팔아오라고 시켰다는 말을 통해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조순만이 ‘얼마나 나가’냐고 꿩값에 대해 묻자 오수길은 ‘누가 팔어 봤으야지’라며 가격을 모른다고 말한다. 즉, 조순만도 꿩의 가격을 모른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용모는 성문을 도와주려다가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인해 재판과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① 용모는 꿩으로 인해 재판을 받으면서 꿩과 같은 해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용모가 꿩을 넘겨 받은 것은 어린 성문을 돕기 위한 배려이다. ③ 용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⑤ 용모가 장에서 꿩을 흥정하려는 모습은 나오지만, 흥정 상대를 찾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C]의 ‘판사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판사의 위엄이 서린 듯한 말투에 대해 서술자가 서술한 것이고, ‘용모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판사의 말에 입을 못 여는 용모의 모습을 서술자가 서술한 것이다. 즉 서술자가 직접 두 인물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므로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① [A]에서 ‘고개를 꾸뻑’ 하는 아이를 ‘여겨’ 본 용모에 의해 그 아이가 ‘고학성이 아들 성문’임이 밝혀지고 있다. 즉 용모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B]에서 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행동에 대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서술자가 용모의 의도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D]에서 ‘용모’가 ‘원기 있게 말’하는 모습에 대해 서술자는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고,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다고 그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E]에서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과 관련한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라고 서술자가 떠오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판사가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 것은 울무에 잡힌 꿩을 팔려고 한 용모의 행동을 조수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나무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수 보호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근거로 야생 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의 내용을 통해 판사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용모가 울무에 잡힌 꿩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긴 것은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용모가 야생 동물인 꿩이 농산물을 해치는 해조인데 보호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한 이유를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④ 야생 동물이 법의 보호를 받든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한 용모의 심리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신고, <귀산음>
(나) 박인로, <노계가>
(다) 법정, <겨꾸로 보기>

26.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와 (나)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는 글쓴이가 우연히 산의 모습을 거꾸로 보게 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 (나), (다) 모두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가), (나), (다) 모두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가), (나), (다) 모두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제7수>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밋기’를 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① <제1수>에서는 ‘인사는 달라졌구나’와 ‘못내 슬허 하노라’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간의 존멸’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산화는 물의 피고 물세는 산의 운다’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의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는 ‘갈매기’를 신의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의 ‘거문고’를 다시 언급하며 <제5수>의 거문고를 비스듬히 들고 산수를 회롱하던 것에서, <제7수>의 거문고에 대한 흥이 다해 낚시터로 내려가는 것으로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28.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

[A]에서 화자는 ‘봄옷’을 입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자연으로 가고 있고, [B]에서도 화자는 ‘베옷’을 입고 ‘낚시터’라는 자연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A]의 ‘봄옷’과 [C]의 ‘베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평생 품은 뜻’은 [B]의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으로 ‘산수에 깃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이 [C]의 ‘낚시대를 켜 채 ‘취두건 베옷’을 입고 ‘낚시터’로 내려가는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D]에서 ‘낚시 놓고 배회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D]의 ‘고기 수’를 쉰 정도라는 표현에서 물의 맑은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E]에서도 ‘누대’의 경치가 ‘깨끗하’여 ‘물’과 ‘하늘’이 ‘한 빛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의 ‘백수’는 흰머리를 뜻하는 말로, 화자가 나이가 들어서야 자연을 찾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가)의 ‘십 년’은 화자가 속세에서 벼슬을 하던 시기로 볼 수 있을 뿐, 화자가 자연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없다.

① (가)의 화자는 벼슬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에서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며 자연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향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자신이 찾아간 자연을 ‘임자 없이 버려져 있던 공간이자 ‘천지가 감춰’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자가 없었다는 점, 감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공간은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어즈러운 기별’은 ‘세상’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화자는 이를 ‘몰라 하노라’라고 말하며 이와 단절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화자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중요한 대상이 아닌 ‘뜯구름’으로 인식하며 단절하고자 한다. ⑤ (가)에서 화자는 ‘산수간’에 누워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며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시구, 구절의 의미 파악

㉑에서 화자는 낚시대를 놓고 물결을 굽어보는데, 물에는 하늘의 모습이 비쳐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물속에 잠겨 있고 이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구름 위에서 뛰노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㉑의 화자는 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을 보고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㉒에서 글쓴이는 마루에서 모로 돌아눕다가 산의 모습을 다르게 보게 된다. 따라

서 ⑥의 글쓴이는 산의 모습이 평소 보던 것과 달리 보인 것에 대해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② ⑥는 달리 보인 산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며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②는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본 것이므로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없다. ③ ②는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⑥ 또한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②는 물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므로 그들이 분리되어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⑥는 산이 선명하게 보인 것일 뿐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②는 물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므로 하늘과 물이 뒤바뀐 것은 아니며, ⑥는 산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다르게 본 것이므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글쓴이가 빨래를 한 후 쉬기 위해 한 행동이다. 글쓴이가 산의 모습을 새롭게 본 것, 즉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은 '모로 돌아누워' 보았을 때의 일이다.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③ '아무개 하'는 것은 대상을 '굳어 버린' 존재로 보게 하므로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아름다운 비밀'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찾아낼 수' 있다.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가)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나) 김혜순, <별을 굶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면 ~다', '~을 ~다고 ~리 수 있는 나'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생명력을 지닌 나무와 현대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① (나)는 '번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두 눈을 뜨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는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의 모습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의 상황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33.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는 것은 현대인이 각자의 일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②는 나무가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⑥의 나뭇가지 끝은 젊은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시어일 뿐,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다. ③ ③는 현대인들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④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현대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보이지 않는'과 (나)의 '볼 수 없는'은

나무가 꽃을 피워 내고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 내게 하는 힘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① (가)의 '노란 얼굴'은 동짓달에 꽃을 피운 개나리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꿈을 피워내며 향해가는 곳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일상에 지쳐가던 현대인이 다시 삶의 의지를 불려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 주는 힘의 근원이고,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각자의 내면에 품고 있어 그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힘의 근원이다.

화법과 작문 정답

35	①	36	④	37	④	38	③	39	⑤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⑤
45	⑤								

화법과 작문 해설

35. [출제의도] 발표 표현 전략 사용

1문단에서 '지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라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천하도가 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청중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일 뿐 발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아니다. ④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누리집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지만, 청중이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

㉠에 <자료 2>를 활용하여 지도에 나타난 나라들을 설명함으로써 제작자의 세계관은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작자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① <자료 1>은 천하도의 전체 모습으로, ㉠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청중에게 천하도의 전체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천하도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자료 2>는 천하도의 일부분을 각각 확대한 그림이다. 위에 있는 그림은 천하도 안쪽 대륙에 나타난 실제 나라들을 확대한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바깥 대륙에 나타난 상상의 나라를 확대한 부분이다. ㉡에 두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나라와 상상의 나라를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⑤ <자료 3>은 천하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별자리 부분을 확대한 그림으로, ㉡에 <자료 3>을 활용하여 천문학에 대한 제작자의 관심이 지도에 반영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 내용 이해, 평가

'학생 1'의 '지도는 사실적 정보만을 담아 제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와 '학생 2'의 '옛 지도는 대동여지도밖에 몰랐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① '학생 1'은 지도에 제작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을 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② '학생 2'는 당대 사람들의 상상력이 담긴 세계 지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하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 뿐, 발표 중 다루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천하도의 판본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발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⑤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유익했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아쉬운 점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38. [출제의도] 토론 입론서의 글쓰기 방식 파악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임을 밝힌 후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1문단에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상속인의 자격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②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만 디지털 유산을 기록 매체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④ 디지털 유산을 상속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지만 상속 과정을 절차에 따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⑤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디지털 유산의 유형에 따라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39. [출제의도] 토론 개요서의 반영 양상 파악

'학생 2'의 말에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반대 측의 근거를 상대측의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학생 1'의 말에서, 입론서에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작한 내용이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미리 의논한 내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 2'의 말에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용어의 개념 중 특정 용어의 개념만 입론서에 반영한 것이 토론자들이 이미 용어의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 2'의 말에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입론서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입론서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학생 2'의 말에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반론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입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 평가

[A]에서 '학생 1'은 입론서에 조사한 모든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학생 2'의 생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했을 때 '학생 3'의 의견대로 조사한 용어를 빠짐없이 설명해 주자는 의견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① [A]에서 '학생 3'은 앞서 '학생 2'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말에 대해 보완할 부분을 알려달라는 것이 맞는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한 후, 토론 개요서에 작성한 용어의 개념을 모두 설명해 주자는 의견을 '학생 2'에게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2'가 해외 기업의 사례를 반론에서 활용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3'은 함께 조사하여 알게 된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에 대한 해외 기업의 사례가 반대 측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⑤ [A]에서는 '학생 2'가 낯선 용어의 개념을 모두 설명해 주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들이 용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 조사한 용어를 모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일부 용어만 반영했던 것이라는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B]에서는 '학생 2'가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추가하자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과 관련된 다른 나라 해외 기업의 사례는 조금 더 꼼꼼히 조사하여 반론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입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41. [출제의도] 토론 내용 점검, 조정

①에는 디지털 유산에 접근이 제한되어 추억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상속인의 피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실적 피해를 언급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만 제시되어 있을 뿐,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에 디지털 유산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에 디지털 유산 상속받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

(나)의 대화에서 '학생 1'은 3문단에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인가?'라는 토론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논의 내용을 초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3문단에서 토론의 쟁점과 관련 없는,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① '포괄적 권리의무'의 개념 설명은 (가)의 1문단이 아니라 2문단에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는 반론 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의 2문단에 해외 기업의 사례를 추가한다는 수정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자고 했으므로, (가)의 2문단에 저작물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수정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현재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고 했으므로 (가)의 3문단에 현재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수정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

페어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인식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각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II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대상인 페어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II에 '해양수산부' 통계 자료의 수치를 제시하여 문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I에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는 해양 생물들이 페어구로 인해 죽어 간다는 뉴스가 조사 동기가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III에서는 제도적 측면으로 신고포상금제 및 법적 제재 강화 등 어구실명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인식적 측면으로 시민들이 방관적 태도를 벗어나 페어구 문제를 자신의 일로 여기도록 당부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

[A]에는 페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시민들의 관심 및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 시민들의 개인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A]를 수정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낚시 도구와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실천 방안은 삭제하고, 멸종 위기종 보호와 관련된 뉴스를 접했다는 조사 동기,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 실천이라는 동아리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결 방안의 의의를 드러냈다.

45.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

ㄴ과 ㄷ에는 어구에 전자 태그를 부착해야 할 필요성과 그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어구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것은 어구실명제의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구실명제가 페어구 수거율을 높여주는 것과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

① ㄱ-1은 해양 쓰레기 중 페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4%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II에 해양 쓰레기 중 페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② ㄱ-2는 페어구로 인한 해양 선박 사고의 발생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II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ㄴ은 유령 어업으로 인해 많은 바다거북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 자료로, I에 페어구로 인해 해양 생물들이 죽어 간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④ ㄱ-1은 해양 쓰레기 중 페어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ㄷ은 페어구 성분의 87%가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II에 페어구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①	36	④	37	④	38	⑤	39	④
40	①	41	⑤	42	⑤	43	⑤	44	②
45	③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안’ 부정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의 ‘뜯기다’는 어근 ‘뜯-’과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로 합성 동사가 아니다.

②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의 ‘값싸다’는 명사 ‘값’과 동사 ‘싸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합성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③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의 ‘늦추다’는 어근 ‘늦-’과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로, 사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④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의 ‘들리다’는 어근 ‘들-’과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로, 피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할아버지 택 마당이 안 드넓다.’의 ‘드넓다’는 접두사 ‘드-’와 형용사 ‘넓다’가 결합된 파생어로, 파생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관형사 ‘여러’를 부정하고 있지만,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부사가 아닌 용언 ‘호리라’를 부정하고 있다.

① ㉠에서 보조 용언 ‘아니하다’는 용언 ‘노티(놓-+ -디)’를, ㉡에서 용언 ‘아니며’, ‘아닐씩’은 체언인 ‘들’, ‘세’를 부정하고 있다. ② ㉠에서는 보조 용언 ‘아니하다’가 평서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에서는 부정 부사 ‘아니’가 의문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노티 아니하다’의 긴 부정문이, ㉡에서는 ‘호리라’ 앞에 ‘아니’를 놓은 짧은 부정문이 사용되고 있다. ⑤ ㉠에서는 ‘묘법’이 둘이나 셋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에서는 시름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37.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

‘겉웃’은 ‘겉’의 ‘ㄷ’이 ‘ㄷ’으로 바뀐 후 실질 형태소인 ‘웃’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고, ‘웃’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거둔]으로 발음된다. ‘국밥만’은 ‘밥’의 첫소리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밥’의 중성 ‘ㅂ’이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국빡만]으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백분율’은 ‘분’의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율’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늘]로 발음(㉥)되므로 [백뽀늘]로 발음된다. 합성어인 ‘색연필’은 ‘연’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년]으로 발음(㉦)되며, ‘색’의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년필]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헛일’은 ‘일’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닐]로 발음(㉨)되고, ‘헛’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때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므로 [헛닐]로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27항

‘새-, 셋-, 사-, 시-’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

‘새-, 사-’는 어두음이 ‘된소리, 거센소리, ㅎ’일 때 사용하고, ‘셋-, 시-’는 어두음이 ‘ㄴ, ㄹ’과 같은 울림소리일 때 사용한다. 또한 ‘새-,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 사용하고, ‘사-, 시-’는 ‘ㅓ, ㅕ’와 같은 음성 모음일 때 사용한다.

39.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35, 38항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의하여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어울려 ‘뵤어’ 또는 ‘뵤여’로 줄어들 수 있다.

① ‘뵤었다’는 ‘뵤-’에 ‘-았-’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② ‘뵤었다’는 ‘뵤-’에 ‘-었-’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③ ‘뵤어’는 ‘뵤-’에 ‘-어’가 어울려 ‘뵤’로 줄어들 수 있다. ⑤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가 어울려 ‘티어’ 또는 ‘트여’로 줄어들 수 있다.

40. [출제의도] 정보 구성 언어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라디오 대담으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작을 알리는 음악’과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정보 제공 방식이 선조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순차적인 검색을 허용한다. ③ (나)는 대담을 진행하다가 ‘시내에 통제되는 ~ 바랍니다’는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청취자의 질문을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을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의 소통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양상을 보인다. ⑤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가)의 ‘라일락’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에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편집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② 정보 수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외부 링크’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편집]’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④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은 정보 생산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자료의 출처를 ‘참고 자료’ 항목에서 밝히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나)의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스마트 가로등이 공유키 역할을 하는 것과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① 진행자는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② 전문가는 부사격 조사 ‘예’를 사용하여 센서 신호를 받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문가는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④ 전문가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댓글 3은 ‘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었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댓글 2와 댓글 3 모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① 댓글 1은 ‘보고서를 찾아보’었다는 점에서 추가로 탐색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소규모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언급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② 댓글 2는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낯설어서 알고 싶었는데’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그 뜻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③ 댓글 3은 ‘얼마만큼의 전력을 절약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다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댓글 1은 ‘도시 간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댓글 2는 ‘보안 문제도 있는데 너무 좋은 점만 드러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가)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통해 10대에서 2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친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올바르게 앉은 자세’, ‘휴식 시간’, ‘스트레칭’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⑤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정보 전달과 설득

(나)에서 한비는 ‘거북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정한 슬라이드에는 3단계 척도가 아닌 ‘예, 아니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유준이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제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제목을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준이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한비가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순서 번호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현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